

나주 영산포 '상권 르네상스' 꿈 부른다

이창·영산·영강동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현장평가
상인·임대인 90% 넘는 동의율
선정된 80억 투입 각종 사업 추진



지난 12일 강인규(오른쪽) 나주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평가 현장에서 영산포 상권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 영산포 권역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에 힘입어 긍정적인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가 기대된다. 나주시는 최근 영산포 권역 '영산·이창·영강' 3개 동 일원에서 '제5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전문가 현장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해 선정하는 '상권 르네상스'는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자생적 경쟁력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5년 간 국비 40억원 등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테마거리조성·점포환경개선 등 '상권 환경개선'과 특화상품개발·홍보·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상권활성화'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공모에 선정되면 영산포 권역 3개 동 34만2555㎡, 848개 점포 거리를 '영산포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산포 전성시대 다시 한 번, 흥어랑 고기랑 먹거리 1번지로 거듭나는 영산포 상권'을 비전으로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 특화지역화', '영산포상권 활로 창출', '맛과 멋의 고장 영산포 브랜드 구축' 등을 3대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동 권역은 혁신산단의 전국 최대 규모 농협 중앙회 도축·가공시설과 연계해 영산포 동물시장과 버스터미널 구간에 '미트-푸드 스트리트'(meat-food street)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산동과 영강동은 근대화유산과 도시재생사업 성과물에 기반한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흥어의 거리, 죽전골목, 근대화유산 거리에 잠들어 있는 빈 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점포환경 개선, 거리미술품, 매력창업 지원사업 등을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선정과 성패는 상인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다.

영산포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상인과 임대인으로부터 각각 93.1%, 94.8%의 사업 동의를 받음으로써 사업 선정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산포 주민 모두가 절실한 심정으로 참여한 영산포 상권 회복을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에 총력을 펼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기자 노트

장흥군수의 과태료



김용기
중부취재본부장

정준순 장흥군수의 휴가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 군수는 지난 주 휴가기간(5일~12일) 동안 관내 면 단위 음식점 사적모임에 참석했다가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6일 장흥군 정가에 따르면 정 군수는 휴가기간중에 유치면 모 음식점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 군수를 비롯해 S모 비서실장과 M모 면장 등 장흥군 공무원과 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 음식점에는 정 군수와 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전직 장흥군수 2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수칙 위반 조사에 나선 장흥군 보건당국은 지난 13일자로 정 군수 일행을 포함해 전직 군수 2명 등 모두 13명에게 출입자 명단 미작성을 이유로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장흥군수가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촌극이 벌어

어진 것이다. 정 군수의 휴가기간 이런 행적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점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행동으로 적절했느냐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휴가를 내고 사적모임을 가진 것은 두고 '의도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며 급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휴가기간중 정 군수가 참석한 사적모임 식사비를 M모 면장이 지불했다는 제보에 따라 3차 기부행위 저촉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휴가를 두고 월가월부 할 이유는 없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9개월 가량 남았다. 정 군수가 재선에 뜻이 있다면 사적모임같은 논란에 휘말리지 말고 균형 성과로 민심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ykim@kwangju.co.kr

장성군 노인회관 신축 순조...내년 상반기 준공

장성읍 영천리에 지상 2층 규모

장성군이 신축 노인회관 건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장성군 노인회관은 지난 2001년 문향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군립중앙도서관과 흥길동체육관, 청소년수련관이 밀집돼 상호 교류가 장점이 있지만 노인들이 이용하기 접근성이 떨어졌다.

군은 과거 전남제재소가 있는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일원을 새로운 노인회관부지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돼 건축 면적 744.54㎡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노인회관 1층에는 회의실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휴게공간 등을 배치하고 2층에는 다목적강당과 프로그램실을 조성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노인회관 신축을 추진한 이후 기본·실시설계를 마친 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이하 BF인증)도 획득했다.

BF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용자가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단계(예비인증)와 준공단계(본인증)를



신축 중인 장성군 노인회관 조감도.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건립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군은 목보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으로 실버복지 1번지로 불린

다"면서 "신축 노인회관이 완공되면 지역 어르신께 차별화된 명품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학교 밖 공연예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재)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은 미래세대의 공연예술 분야 관심도 증가와 잠재적인 전문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학교 밖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학교 밖 공연예술'은 지역의 미래세대가 접하기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풍부한 문화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마이스터 클래스와 비트 클래스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마이스터 클래스는 클래식 분야의 미래 공연예술인 양성을 위한 소규모 심층 지도 형태로 운영되며, 비트 클래스는 아프리카 타악기를 통한 소리와 리듬의 원형을 탐구하는 대중적인 수업을 진행

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 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7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동문화예술촌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예술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동문화예술촌의 정체성에 적합한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강진군 가스사고 예방 서민층 안전장치 보급

강진군이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강진군은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타이머) 보급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타이머는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중간 밸브를 닫아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안전기기로 과열이나 화재,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자,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과 경로당 등이다.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편다.

자부담 5만원만 납부하면 가스 사고에 취약한 고부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준다.

신청기한은 20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가스는 편리한 만큼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며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308가구에 타이머, 200가구에 금속 배관을 각각 설치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